

# 태고종 종로시대 본격 개막

### 총무원, 11일 전승관 입주 ... 내년 봄 낙성법회 천태·진각종도 조계타운 인근에 사무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 총무원이 12월 11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이하 전승관)내 이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종로 총무원 시대를 열었다.

2004년 첫 삽을 뜬 후 3년 만에 완공된 전승관은 서울 서대문구 북촌로터리 연건평 1천600여 평 규모에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됐으며 낙성식은 내년 봄 불행할 예정이다. 전승관 내부는 지하 1층~3층 식당 및 숙소와 주차장, 지상 1층 전통문화 전시관 및 다도시연관, 2층 전통문화교육관과 종무기관, 3층 전통문화체험관 및 법당 등이 자리잡고 있다.

전승문화 전승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1층에서는 불교를 사상적 기반으로 하는 모든 전통문화의 교육, 전시, 공연, 콘텐츠

개발과 타종교문화 및 해외불교문화 교류 관련사업들이 전개된다.

2층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 그리고 새로운 문화창출과 보급을 위한 스킵스 역할을 하는 각종 기관들이 한 곳에 자리하게 된다.

태고종단의 모든 불교문화와 관련된 총무원행정의 의사결정 및 집행, 국제교류와 협력 및 연대정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3층에는 태고종도의 단결과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정신적 귀의 및 기도역할을 할 법당 사무실이 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전승관이 개원된 이자리는 한국불교사에 가장 먼저 불교가 전래된 53불이 바다를 통해 모셔진 기록이 있는 금강산 유점사 서울 포교당으로서 출

발한 종합불교문화의 성지"라며 "태고종 정통법맥 수호의 근본도량으로서의 역할과 태고종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는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완공 의미를 피력했다.

또한 운산 스님은 "이자리에 전통학맥을 이었던 옛 전통을 살려서 강원을 개설하여 전통종단의 교육체제도 완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태고종 이외에도 천태종 진각종이, 한국문화와 불교 행정의 중심지인 종로 '조계타운'에 종단기관지 사무실 등을 개설해 '큰 종단들 종로시대 개막'에 보좌를 맞추고 있다.

천태종은 지난해 말 종로구 경운동 SK 허브오피스텔에 종단기관지인 금강불교신문사와 종단 전산실, 스튜디오 등을 갖춰 활발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진각종도 지난해 10월 월곡동 종인원내에 있던 종단기관지 밀교신문을 수송동 두산위브 빌딩으로 이전시켜 문서포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주일 기자



천태종 연리회 소속 비구니스님들이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단양 구인사에서 처음 열린 '어린이·청소년 포교전문가 양성 기본과정' 교육을 받고 있다.

## "어린이·청소년은 불교의 미래"

### 천태종 포교전문가 양성 첫 교육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충북 단양 구인사에서 연리회(어린이회와 학생회)를 지도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소속 3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청소년 포교전문가 양성 기본과정' 첫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천태종이 (사)불교아카데미(원장 이해숙)에 위탁한 것으로, 총무원장 정산 스님이 직접 교육에 참석하는 등 어린이 포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 눈길을 끌었다.

정산 스님은 교육에 앞서 "어린이 포교

가 잘 돼야 한국불교에 미래가 있다"면서 "일회성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종단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교육은 정응기 사찰경영연구소 부소장의 '지식정보시대의 불교리더십', 지일 스님의 '청소년의 심리와 문화트렌드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기법', 이영철 NGO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의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마케팅 기법' 등의 워크숍과 이해숙 원장의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불교계의 대응전략'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가한 연리회 소속 스님들은 대

부분 "어린이 포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가 불교 포교의 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깨닫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과 포교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제시 미흡 등을 아쉬움으로 표했다. 김주일 기자

### 회당학원 이사·감사 선출

학교법인 회당학원(이사장 휴명)은 12월 4일 재단 회의실에서 제 348회 임시 이사회를 갖고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회정 정사를 재 선임하면서 회정 정사와 증광 정사를 신임 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에는 해명 정사를 선출했다.

회당학원은 또 대학교원인사규정과 대학직제규정 개정안, 2007학년도 대학교원 신규채용 계획안을 심의했다.

###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 춘천 삼운사 등 불공 입제

강원도 지역 천태종 사찰들이 한 데 모여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한다.

춘천 삼운사(주지 월도), 원주 성문사(주지 경해 스님) 등 도내 천태종 사찰 31곳의 주지 스님들과 신도회 간부들은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삼운사 대불보전에서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200일 불공 입제 대법회'를 봉행한다.



## 육·해·공군사관학교 군법당 후원 절실

### 회랑사·호국사 불사기금 부족 '발동동'

군의 중추역할을 하는 장교 양성 기관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에 대한 포교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관학교 군법당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단체가 적고 조계종 군중교구나 주지 법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육군사관학교 호국 회랑사(주지법사 최명천)는 매주 생도 법회에 서울 정릉 보국사 지행 스님이 떡을 보시하고 있고, 진각종에서 매달 경제적인 후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현실이다. 다행히 생도 포교에 원력을 갖고 있는 한 불자가 매년 부처님오신날 등 보시를 해 1년 살림을 겨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당이 지은지 30년이 넘었고 교육관으로 활용했던 관음전이 심한 노후로 몇 년전부터 거의 사용을 못해 생도들의 종교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최근 관음전 리모델링을 결정하고 군예산 1억 2천만원에 확보했고 조계종 군중특별교구도 내년도 예산으로 4천만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2억 5천만원 정도의 리모델링 경비를 마련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생도 생활관에서 도보로 30분 이상 거리가 법당이 있어 생도법회가 있는 수요일마다 200여 불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육사 교회의 경우 이미 기존 건물을 허물고 두배 크기로 증축했고 성당도 16억원 정도를 투입해 교육관을 짓고 있어 생도 생활관 근처로의 이전이 시급하나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공군사관학교 성무 호국사(주지법사 허영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천태종 단양 구인사와, 서울 관문사를 비롯해 지역의 교구본사인 법주사, 충북 예불회에서 매년 경제적인 후원을 하고 있지만 법회도 참석하는 생도들의 간식을 주기에 힘든 상황이다.

특히 법당 바닥이 마루인 탓에 겨울철 종교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근 교육관 신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계획한 세



김연숙 보살(왼쪽)은 11월 30일 제38회 군중의 날 기념법회에서 공군사관학교 교육관 건립을 위해 1억원을 희사했다.

우고 있을 뿐이다.

이같은 소식을 접하고 김연숙 보살이 지난 11월 30일 제38주년 군중의 날 기념식에서 교육관 건립 기금 1억원을 희사해 불사를 시작할 계획이나 150명 규모의 단층 건물을 짓는데만 3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공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해군사관학교 호국사(주지 법사 한관희)도 육군사관학교 회랑사를 지원하고 있는 지행 스님이 12년부터 도서 및 위문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다

른 후원 단체가 없어 생도 포교에 애를 먹고 있다.

조계종 군중특별교구 주지 일면 스님은 "군법당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 활동도 중요하지만 군 신도회의 중심 역할을 하는 장교 포교에도 중요하다"며 "교구에서도 각군 사관학교 생도 포교의 중요성을 감안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현실이어서 종단이나 불자들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두서 기자

####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제를 갖추도록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다 많은 군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된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하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소의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넓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군법당, 군법사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행 및 후원: 조계종 군중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중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락장터 후원 석가모니불상(예·표) 문의:02-2004-8291

**만인 동참**  
 ARS: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법당을 살립니다

# 소금 잘 만난 김치, 효능도 으뜸!!!

일반 김치보다 항암작용이 탁월한 죽염으로 담근 김치는 항암작용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병술년은 천태산 황토 맹종죽염으로 김장하실 것을 권합니다. 죽염으로 담근 김치는 처음에는 씹쓸한 맛을 느끼지만, 숙성이 되면 최고의 김치맛이 날 뿐더러 항암작용이(정제염 30%, 죽염 66%) 일반김치보다 매우 탁월하다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공급되었던 황토맹종죽염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고자 공장과 가격 그대로를 책정하였습니다.

- 양치, 맛사지 및 김장용 3번구운 황토맹종죽염 380g 1만원 (생활죽염)
- 1000°C 이상 고열로 용융, 제조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는 체질개선용. 아홉번구운 맹종죽염 (380g 10만원) 주문시 올 바른 죽염 사용법 설명서를 동봉해 드립니다.
- 천태산 죽염 : 전화 055)382-5515, 011-870-3951 / 팩스 055)384-1553



아홉번 구운 천태산 황토맹종죽염 (1000°C 이상 9번)

세번 구운 천태산 황토맹종죽염 (1000°C 이상 3번)

### 천태산 황토맹종죽염의 實相과 理解

황토맹종죽염이란 본래 대나무 통 속에 천일염을 넣어 고열에 구워 만들어내는 민속 향약으로 먼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인체의 건강 질병예방과 치료에 널리 응용 되어 온 신비로운 건강식품이다. 천태산 진우도인이 제조하는 천태산 황토맹종죽염은 경남 양산시 원동면 천태산에서 천일기도중에 천태지자 대사의 수기로 진우도인이 신비의 죽염 제조 공법을 더욱 정밀히 개발 심화하여 우리 고유의 음식 궁합론과 연계 그 효능을 극대화하는데 정력을 모았다.

보편적으로 죽염을 청죽과 엷을 조합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단순히 이해하고 있으나 천태산 황토 맹종 죽염은 황토와 송진 첨가는 물론 대나무를 일반적으로 쓰는 왕죽과 분죽이 아닌 특수한 맹종죽을 주재료로 하는데 있다. 위 4가지 물질을 배합하여 1300°C 이상의 고열을 가하여 아홉번을 합성 반복 결정체를 만드는 법제 방식으로 탁월한 공능을 갖는 것으로 정형이 나왔다.

**천하절경 성지순례 도량 천태산 천태사 성지순례 오세요.**

## 소금 잘 만난 김치 효능도 으뜸

# 부산대 박건영 교수 죽염김치 양배양·노화억제 연구 논문



부산대 박건영 교수는 죽염 김치 연구 논문에서, 죽염 김치는 일반 김치보다 항암 효과가 탁월하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죽염 김치는 항암 효과가 탁월하며, 노화 억제 효과도 있다. 이는 김치의 효능을 높여주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건영 교수는 "죽염 김치는 일반 김치보다 항암 효과가 탁월하며, 노화 억제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죽염 김치는 항암 효과가 탁월하며, 노화 억제 효과도 있다. 이는 김치의 효능을 높여주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대 박건영 교수 죽염김치 양배양·노화억제 연구 논문

「죽염과 구운 소금이 우수한 항암 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소금을 태우는 과정에서 소금 속에 있는 중금속 등 나쁜 성분이 남아 가고 미네랄 등 좋은 성분은 그대로 남아 항암등의 효능을 보이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죽염 김치의 경우 위암 세포를 66%나 억제하는데 그쳤다. 또 맛 증진을 위해 김치연구조 연구원들에게 맛관능테스트 훈련을 시킨 다음 각각의 소금으로 담근 김치를 맛본 결과 죽염과 구운 소금이 정제염보다 훨씬 맛났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2006년 9월 13일자 수요일 20면 부산일보 보도)